

문제 1

□ 출제 의도

-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관계를 요약·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에서 화자는 국철을 타고 가면서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통하여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의 차별 없는 어울림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큰 틀에서 인간 평등을 의미한다.
- 제시문 [나]는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 로만 인식하여 여성을 남성과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던 과거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불평등을 의미한다.
- 제시문 [다]는 난쟁이들이 사는 릴리푸트에서는 억압, 공포, 불공평, 폭력이 없으며 큰 기업, 공장, 경영자도 없음을 보여준다. 그곳에서는 투표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며, 국적도 중요하지 않다. 완전한 평등 또는 이를 지향하는 사회로 묘사된다.

□ 자료 출처

- [가]: 이승원 외, 『고등학교 문학 11』, 줄은책신사고, 2012, 92쪽. <하종오, ‘동승’ >
- [나]: 박갑수 외, 『고등학교 국어 (상)』, 지학사, 2011, 77쪽. < ‘결혼한 여자는 직장을 떠나라?-여성의 조기 정년에 관한 판결’ >
- [다]: 윤여탁 외, 『고등학교 문학 11』, 미래엔, 2012, 46쪽.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 평가 기준

1)번 문항

-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5점)

◆ 채점 기준

- [가]에서 ‘동승’ 을 찾아내면 5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함
- 그 외의 다른 단어들 혹은 제시문 밖의 단어로 답할 경우(적절하지 않음)

-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일차적으로 제시문에 근거한 답안으로,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동승’ 이라는 시구가 평등 또는 차별 금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가]의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나]의 ‘여성에 대한 과거의 태도’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7점)

◆ 채점 기준

- [가]는 동승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평등 또는 차별 금지가 올바른 인간관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 [나]의 상황이 부당함을 제대로 요약하고 설명하면 0~7점을 부여함

- [다]에 나타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8점)

◆ 채점 기준

- [다]에서 나타난 인간관계는 억압, 공포, 불공평, 폭력이 없으며, 전제자도 없다. 국적에 따른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8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에서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는 “동승”이다. 화자는 국철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아시안 젊은 남녀를 만나게 된다. 새들은 깃털 색깔이 달라도 어울리는데, 화자는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아시안 젊은 남녀도 화자와 마찬가지로 일자리로 가는 중일 것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언어, 피부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2번) 예시 답안

[가]의 ‘동승’에서 평등한 인간관계가 드러난다. [나]에서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로 인식되며 [가]와는 상반되는 인간관계가 드러난다. 여자는 아버지, 남편, 아들을 따라 살면서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남성의 보조 업무만을 한다. [다]에서 인간관계는 평등하다. 어떤 종류의 억압, 공포, 불공평, 폭력이 없으며 권력을 나누어 주면서 무서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다. 큰 기업, 공장, 경영자도 없으며 국적에 따른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평등하다. 이는 [가]의 ‘동승’이 의미하는 것과 상통한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특정한 관점에 기초한 세계 인식의 차이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세계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시문 [가]는 자연을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이자 도구로 생각하여 원주민의 생활 터전을 훼손하는 백인의 부당성을 역설하고자 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유럽인의 아메리카 발견 또는 정복을 미화하는 헤게모니 담론 뒤에 감추어져 있는 제국주의적 관점 내지 정의를 위한 필요악의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고지도에 반영되어 있는 공간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대소상략(大小詳略)이나 중심 방향의 표기를 근거로 통치 이데올로기가 고지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를 기초로, 제시문 [다]에서 고지도에 반영되어 있는 공간 인식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나아가 그러한 공간 인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자료 출처

- [가]: 이상원 외,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천재교육, 2011, 50쪽. < ‘어느 원주민 추장의 편지’ >
- [나]: 윤여탁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미래엔, 2011, 354쪽. < ‘라틴 아메리카는 발견되었는가’ >
- [다]: 허우궁 외, 『고등학교 사회』, 교학사, 2010, 26쪽. < ‘우리 조상의 자연과 지역에 대한 인식’ >

□ 평가 기준

- 제시문 [가]와 [나]의 문제 인식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제시문 [가]와 [나]의 문제 인식 관점을 모두 파악하여 기술했으면 10점
- 제시문 [가]와 [나]의 문제 인식 관점 가운데 하나만을 파악하여 기술했으면 5점
- 제시문 [가]와 [나]의 문제 인식 관점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했으면 0점
 - [가]의 문제 인식 관점 : 자연을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이자 도구로 생각하는 백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원주민의 관점
 - [나]의 문제 인식 관점 : 유럽인의 아메리카 발견 또는 정복을 미화하는 헤게모니 담론 뒤에 감추어져 있는 제국주의적 관점을 문제시하는 관점

- 제시문 [다]에서 읽어낼 수 있는 고지도의 공간 인식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

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20점)

◆ 채점 기준

- 고지도에 반영되어 있는 공간 인식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서술한 경우
 -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논거로 활용하여 서술한 경우 20점
 - 제시문 [가]와 [나] 가운데 하나만 논거로 활용하여 서술한 경우 15점
 - 제시문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10점
- 고지도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서술한 경우
 -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논거로 활용하여 서술한 경우 15점
 - 제시문 [가]와 [나] 가운데 하나를 논거로 활용하여 서술한 경우 10점
 - 제시문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5점
- 그 외의 경우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고지도는 통치자 중심의 공간 인식을 보여준다. 임금이나 고을의 수령으로 대표되는 통치자가 위치한 중심부를 크고 자세하게 그리고 주변부를 간략히 처리한 것이나 글씨나 산을 중앙을 향하도록 배열한 것, 그리고 ‘좌도’와 ‘우도’의 명명은 그와 같은 공간 인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공간 인식은 [가]와 [나]에서 제시되고 있는 유럽인의 아메리카 정복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방식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가]는 자연을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이자 도구로 생각하는 백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원주민의 관점을 보여주고, [나]는 유럽인의 아메리카 발견 또는 정복을 미화하는 헤게모니 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고지도에 나타난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는 아메리카 대륙의 정복자와 피정복자 관계로 등치시킬 수 있다. 때문에 고지도에 나타난 공간 인식은 중심부의 지배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을 관철시키고 합리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부의 자생적인 세계관이나 가치를 부정하는 폐단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고지도의 공간 인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지도의 공간 인식은 통치 권력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었지만, 일반 백성에게는 피동적인 삶을 강제하는 족쇄였다고 하겠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목의 성취 기준인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기능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은 자유로운 독립적 개체이지만 사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사회(구조)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하고 적극적 상호작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나]에서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동기가 ‘성과’에 대한 기대감과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수단성’에 대한 기대감, 결과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가치인 ‘유의성’의 기제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는데 어떠한 기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제의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 그래프 [다]는 개인의 자기 조절 학습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의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이 사전-사후 실험의 점수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두 집단(프로그램 적용 집단, 비적용 집단)에서 프로그램 경험 전에는 유사한 정도의 전략 점수를 나타내며, 프로그램 경험 후에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비적용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략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 제시문 [라]의 ‘나’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며 새로운 자아의 계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그러나 자기 계발이란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나 만족도도 중요한 것이므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 문항은 제시문 [가]와 [나]를 바르게 이해하며, 그래프 [다]에서 유의미한 해석을 하고, 이를 제시문 [라]의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에 적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 - [다]의 정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위 이론을 수용할 경우 ‘나’의 태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라]의 ‘나’가 [가] - [다]의 행위 요인과 다른 삶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전제와 논리를 제시할 경우, 그러한 전제와 논리 및 논거의 타당성에 따라 화자의 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자료 출처

- [가]: 김영순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2013, 68쪽. < ‘사회적 관계와 사회 구조’ >
- [나]: 강성단, 『고등학교 기업과 경영』, 천재교육, 2011, 89쪽. < ‘경영 관리’ >
- [다]: 허은영, 「방과 후 학교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 조절 학습 전략, 자기 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7(2), 2009, 221-222쪽.
- [라]: 박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3, 210쪽. < 이상, ‘날개’ >

□ 평가 기준

○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적절히 파악하고, [나]의 개인 행동의 동기 유발 요인(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을 파악하여 그것이 개인의 목표 설정과 성과 지향적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였으면 10점
- [가]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 또는 [나]의 개인 행동의 동기 유발 요인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서술할 경우 5점
- [가]와 [나]의 내용 이해에서 유기적인 서술 여부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다]의 자료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을 평가함(15점)

◆ 채점 기준

-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검사 전후의 집단 간 자기 주도 학습 전략 점수 차이를 파악하여 기술함을 전제로 하되,
 - 집단 간 비교 서술한 경우 15점
 - 집단 간 비교 서술을 하지 않은 경우 10점
-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검사 전후의 집단 간 자기 주도 학습 전략 점수 차이에 유의하지 않고 추상적 혹은 자의적으로 기술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가]-[다]의 논지 및 논거와 연계하여 [라]의 ‘나’의 태도를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함(15점)

◆ 채점 기준

- [가]-[다]의 논지와 자료를 활용하여 [라]의 ‘나’가 보이고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15점
- [가]-[다]의 논지와 자료를 활용하여 [라]의 ‘나’가 보이고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였으나 비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10점
- [가]-[다]의 논지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라]의 ‘나’가 보이고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5점
- [가]-[다]의 논지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라]의 ‘나’가 보이고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비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예시 답안

<예시 답안 1>

[가]에서 개인은 사회라는 공동체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역동적 존재이다. 사회는 개인의 역할과 다양성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 행동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가 발전된다. [나]는 이러한 개인의 자발적 목표 설정과 성과 지향적 행동이 성과에 대

한 ‘기대감’, 보상에 대한 믿음으로서 ‘수단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유의성’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 준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자발적 행위 또는 행동을 유도한다.

[다]는 동기, 인지, 행동 전략을 중심으로 한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적용 집단의 점수가 136.82점에서 192.18점으로 급격히 향상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목표 지향적, 성과 지향적 행동이 그렇지 않은 행동에 비해 개인의 발전을 유도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과 사회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때 자기 주도 능력은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된다. 이 점에서 [라]의 ‘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포기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그가 부담해야 할 몫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다.

<예시 답안 2>

[가]는 개인이 사회의 영향 속에서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나]는 개인의 행위가 성과나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논의한 기대 이론이다. 두 자료에 나타난 행위의 동기는 [다]의 전략 점수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의 점수 변화는 55.36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4.17점에 비해 월등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인 요인은 개인의 행위를 유도하는 목표 설정, 성과 지향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점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지 않으며 안락을 추구하는 [라]의 ‘나’는 피동적인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행복과 안락이라는 가치 기준은 주관적인 성격을 띤다. 달리 말해 [라]의 ‘나’가 갖는 삶의 태도는 행복과 불행 자체를 고민하지 않음으로써 기대와 보상 등의 사회적 요인을 ‘세속적인 계산’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다.

‘나’가 보인 삶의 태도에서 사회적인 요인을 배제했을 때, 그가 느끼는 안락하고 절대적인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행복과 불행은 외적인 지표만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과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의 ‘나’는 행복과 불행의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함으로써 자기 계발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